

FEATURE

A Study on How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ffect Happiness of Wage Workers with Disabilities : Multiple Parallel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Park, Ji-sun

Lecturer, Dept. of Social Welfare, Woosong University, South Korea

ABSTRACT

In order to find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promoting the happiness of the disabled, this study looked at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happiness of wage workers with disabilities by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in it. To this end, based on Alderfer's ERG theory and previous research on happines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ey variables and other variables was constructed as a research model and analyzed through a structural equation model. For the analysis data, the study used data from the 7th year of the 2nd wave survey of the disabled employment panel survey provided in 2022 by the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Disabled under the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in 2022.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level of happiness was low among wage workers who are older in ages, with low level of education, and with physical and external disabilities. In addition, self-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showed a complete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happines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re is a need for an institutional mechanism that can remove the discriminatory factors prevalent in Korean society, and that, in order to help form the formation of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for the disabled, practical interventions in various dimensions are needed.

KEY WORDS

Wage workers with disabilities, Happiness,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elf-efficacy, Job satisfaction

Corresponding Author:

Dr. Ji-sun Park, Lecturer, Woosong University, Daejeon, South Korea.

E-mail: lundy@daum.net

 <https://orcid.org/0000-0003-2787-8262>

Received: February 11, 2024; Reviewed: February 26, 2024; Revised and Accepted: March 2, 2024

I. 서론

한국은 전후 경제성장과 과학발전 등을 통해 물질적 진보를 이뤄왔다.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계획에 따라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룩함으로써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반열까지 올랐다(외교부, 2021). 그러나 국민이 일상에서 누리는 행복 수준은 경제적 성취에 못 미치며 ‘성장 대비 저행복’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이태진 외, 2021). 현재 한국은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소득불평등이 가장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고(한겨레, 2023.04.10), 높은 자살율로 인해 자살공화국으로 불린다(연합뉴스, 2024.01.07). 그리고 장애·연령·빈곤·성 등 특정 영역에 대한 혐오가 심화되면서(뉴스핌, 2023.12.05; 서울경제 2023.07.21; 에이블뉴스, 2023.08.07; 이투데이, 2024.01.08) 행복과는 더욱 거리가 멀어지는 양상이다.

2023년 3월 유엔(UN)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951점으로 조사대상 137개국 중 57위를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과 비교하면 35위로 행복지수가 낮은 순서로 네 번째 국가에 해당된다. 입소스(Ipsos, 2023)가 보고한 자료에서도 한국 행복지수는 100점 중 57점으로 10년 전인 2013년 62점과 비교하여 5점이나 낮아졌다. 사회구성원이 사회로부터 권리로 보장받아야 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한편,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보이고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고 있지 않다. <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집단에 대한 질문에 경제적 빈곤층 다음으로 장애인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취약집단에 대한 인권 존중 수준 인식에 관한 문항에서는 이주민에 이어 장애인으로 나타나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하위집단에 포함되었다. 또한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로 장애인 인권이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더불어 인권침해와 차별 경험은 피해자의 삶의 질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한준 외, 2022) 장애인 행복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장애인을 도움이나 돌봄을 받아야 할 수혜자라고 인식하거나 차별적이고 대상적인 관점을 견지하는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주체적이고 주도적 삶을 살아가야 할 장애 당

사자를 소외시키고, 배제함으로써 장애인의 행복권을 저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장애인의 행복증진을 위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행복에 관한 조사와 연구 성과를 축적해 가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행복에 관한 연구를 보면, 대체로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장애인의 행복감이 낮다고 보고한다(김차영·이인영, 2024; 황정우·유수현, 2013; 박종은, 2022; Emerson et al., 2020; Hsieh & Waite, 2019). 아울러 장애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부정 요인과 긍정 요인을 다룬 연구로 나뉜다(송진영, 2024). 부정 요인을 다룬 연구에서는 주로 스트레스, 차별경험, 자살생각 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장애인 행복을 저해하는 부정 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긍정 요인을 다룬 연구에서는 사회 참여, 대인관계,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등과 같은 요인을 포함하면서 장애인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 요인으로 다룬다. 이 중에서도 대인관계와 자기효능감, 직무요인은 장애인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대인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윤희정·신자은, 2015), 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이 행복감을 높이며(송진영, 2024; 송해란·정은희, 2023), 장애인의 직무만족이 일상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유수형·조상미, 2021)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는 장애인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단선적이고, 단편적으로 검증하였다는 데 한계를 보인다(송진영, 2024). 다시 말해, 장애인의 행복감에 긍정적 대인관계와 자기효능감 및 직무만족이 복합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검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앨더퍼(Alderfer, 1972)의 ERG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은 생존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였다. ERG이론을 중심으로 오민지·이수영(2017)은 행복의 결정요인을 검증하였는데, 생존욕구인 건강상태와 경제상태에 만족할수록, 관계욕구인 가족관계나 친구관계에 만족할수록, 성장욕구인 종교생활, 여가생활, 직장생활에 만족할수록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의 생활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앨더퍼(Alferder)의 ERG이론과 선행연구(오민지·이수영, 2017)를 토대로 장애인 개인의 욕구가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임금근로활동을 하는(생존욕구) 장애인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대인관계(관계욕

구가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성장욕구)을 거쳐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목표다. 욕구를 파악하는 일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복지실천과 정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본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임금근로 장애인의 행복증진을 위해 어떠한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는지, 정책과 실천에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행복의 개념

행복은 개인의 삶과 사회 지속가능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목표이자 가치다. 이를 반영하듯 유엔(UN)의 세계인권선언이나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등에서 구성원의 행복을 권리로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행복은 추상도가 높고, 개인의 주관적이고 내적인 경험에 따라 다양한 잣대가 있으며 학문적으로도 행복에 대한 관점에 차이가 존재하여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이에 행복과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된다. 이를테면 심리적 안녕감, 생활만족, 삶의 질, 삶의 의미 등을 들 수 있다(김근홍·이송희, 2023).

행복은 고대에서부터 철학적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야 철학을 넘어 과학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1984년 에드 디너(Ed Diener)에 의한 주관적 안녕감 측정도구를 출발로 행복에 관한 과학적 연구가 확산되었다.

행복을 측정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국회미래연구원, 2019). 첫째, OECD에서 국가 간 행복순위를 조사할 때 활용하는 캔트릴 사다리(Cantril Ladder)로 0점~10점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점수로 평가하여 삶의 만족도를 측정한다. 둘째, 정서와 감정 문항을 제시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특정 기간에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를 얼마나 경험했는지를 측정한다. 셋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데미니아(eudaimonia) 개념에 기초한다. 즉 주변과의 관계, 개인의 성장, 자율성, 자기수용, 삶의 목적, 주도적 삶과 같은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여 건강하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행복은 소득, 질환, 직장 등 객관적 상태보다는 개인의 심리적, 경험적 특성에 기반한 주관적 판단이자 평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행복 개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행복을 개인의 삶을 포괄적으로 고려했을 때 스스로 느끼고 평가한 삶의 상태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장애인의 행복감

초기 사회복지실천에 영향을 준 의료모델에서는 질병과 장애를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 능력의 손상으로 정의하면서 개인이 겪는 불행한 일로 인식했다. 사회는 이러한 장애를 개인의 기능상 결핍이나 결함으로 바라보며 행복하지 않은 상태, 무능력한 상태로 간주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인권운동 확산으로 권리의식이 증진되고,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사회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높아지면서 장애에 대한 관점도 점차 바뀌어가고 있다. 한국은 2006년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이후 장애인의 행복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이 강화되었다. 그 결과, 약점, 결핍, 불행이라는 이름에서 개성, 다양성, 다름이나 차이로 장애를 지칭하는 등 장애에 대한 인식과 관점의 변화가 포착된다.

이와 같이 사회의 긍정적인 인식변화는 분명 장애인의 행복감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행복감을 비교한 연구를 보면, 장애인의 행복감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행복감을 비교한 김차영·이인영(2024)의 연구에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하루 동안 느낀 행복감과 전반적인 행복감 모두에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정우·유수현(2013)의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의 행복 수준이 비정신장애인보다 낮다고 보고하였고, 박종은(2022)의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행복 출발점이 비장애인의 행복 출발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행복감이 낮다는 결과는 국내 연구뿐 아니라 국외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Emerson et al., 2020; Hsieh & Waite, 2019).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덜 행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상 그렇지만은 않다는 결과도 발견된다. 장애인의 행복 수준을 종단 분석한 연구에서는 장애인 행복 회복속도는 비장애인보다 빠르다고 보고하였고(Oswald & Powdthavee, 2008), 장애인의 행복 증가폭이 비장애인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는 보고(박종은, 2022)도 있다. 이

러한 선행연구 결과에서 찾을 수 있는 함의는 사회시스템이 주로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장애인의 상황이 열악해 보이거나 기능적으로 비장애인보다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거나 행복하지 않은 상태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행복감이 개인의 주관성과 개별성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는 평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장애 그 자체가 반드시 장애인의 행복감을 좌우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Moller, 2011; 박중은, 2022). 따라서 ‘장애’라는 요소보다는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 외’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행복감 결정요인

행복에 대해 개개인의 잣대와 평가결과가 다른 이유는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인구학적 특성과 같은 개인요인, 개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련하는 친밀한 관계나 지지망, 사회자본을 비롯하여 개인이 속한 사회의 특성, 문화, 정치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한편, 허중호(2023) 연구에서는 행복에 대한 요인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지난 10년간 유엔(UN)이 보고한 세계행복보고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하였다. 즉 ‘상호신뢰할 수 있고 관대하며 서로 돕고 시는가?’,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자유로운가?’, ‘소득과 건강은 좋은 상태인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수록 더 행복한 개인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개인이 많을수록 더 행복한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일(역할/소득)과 건강, 관계, 자기결정, 신뢰를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행복 결정요인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욕구이론을 들 수 있다. 욕구이론에서는 욕구충족은 행복감이나 불행감과 연결된다고 하였다(Maslow, 1954; 손지현, 2013). 욕구이론 중에서는 실증연구를 토대로 사용되고 있는 이론으로 앨더퍼(Alderfer, 1972)의 ERG 이론을 들 수 있다. 앨더퍼(Alderfer)는 매슬로우(Maslow)의 욕구위계이론에서 나타난 한계를 보완한 이론으로 생존욕구(existence needs), 관계욕구(relatedness needs), 성장욕구(growth needs)의 3단계로 구성된 ERG이론을 개발했다. 이들 욕구는 두 가지 이상 동시에 작용하여 행동을 유발할 수 있고, 하나의 욕구가 충족되면 상위욕구로 진행되는 매슬

로우(Maslow)의 견해와는 달리 욕구 방향은 상향뿐 아니라 하향 퇴행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오민지·이수영(2017)의 연구에서는 ERG이론을 토대로 생존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를 각각 변수화하여 행복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생존욕구에서는 건강과 경제, 주거상태, 관계욕구에서는 가족관계와 이웃관계, 성장욕구에서는 종교와 여가,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ERG이론을 토대로 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여러 선행연구에서 생존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에 해당하는 다양한 요인과 행복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먼저 행복은 경제력이나 건강상태와 같은 기초생활 관련 요인(생존욕구)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개인의 경제력이나 경제적 지위는 행복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연구(최영출·이지혜, 2013; 손지현, 2013)를 비롯하여 양호한 건강상태나 건강유지가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안상현, 2013; 김혜연, 20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행복은 개인의 대인관계역량(관계욕구)에 의해 좌우되기도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박영화·고재홍, 2005)이나 가족과의 정서적 접촉(이영숙·김정옥, 2002), 또래관계(이진숙·김은주, 2013)나 대인관계능력(서하진·김정옥, 2009; 김민경, 2012; 박희수·문승연, 2014)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정은의·노안영, 2007; Lucas & Diener, 2009)이나 자기효능감(윤갑정, 2012; 김청송, 2018)과 같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정서, 사회참여활동(류시영·강방훈, 2012; 이명우 외, 2016; 이미영 외, 2019; 전근성, 2022)이나 직무만족(이경민·최윤정, 2009; 유수형·조상미, 2021)과 같은 외적 활동을 통한 자기성장과 긍정적 평가가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행복감 결정요인으로서 긍정적 대인관계,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한데 앞서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특히 대인관계, 자기효능감(자신에 대한 믿음), 사회참여와 만족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한다. 특히 대인관계는 행복의 원천으로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내재된 동기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교환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교류를 통해 타인에게 다양한 물질이나 정서 등을 다양하게 투자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상대에게서 다양한 보상을 받으

며 만족감을 얻는다. 이는 가정뿐 아니라 학교, 직장 등 개인이 속한 미시사회에서 거시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에서 관계를 형성하며 생활한다. 긍정심리학에서도 긍정적인 대인관계는 행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잘 형성된 대인관계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긍정적인 대인관계는 자신에 대한 믿음과 효능감을 높인다. 박영신·김의철(2004)의 연구에서는 인간관계가 원만한 집단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높아져 행복감과 성취감을 높게 인식했고,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집단에서는 좌절감과 배신감을 느끼며 자기효능감이 낮아졌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개인의 긍정적인 대인관계는 직무만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 역량으로 대인관계능력이 높을수록 직무효율성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낮추어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황인호·장성화, 2012; 고헌록·김정희, 2014; 이진우·정명희, 2023). 즉 긍정적인 대인관계는 행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을 통해서도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엘더퍼(Alderfer)의 ERG이론을 토대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생존-관계-성장욕구의 구체적인 변수인 긍정적 대인관계, 자기효능감, 직무만족을 행복 결정요인으로 채택하고, 기존 연구에서 검증한 인과관계를 참고로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을 긍정적 대인관계와 행복의 관계에서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변수 간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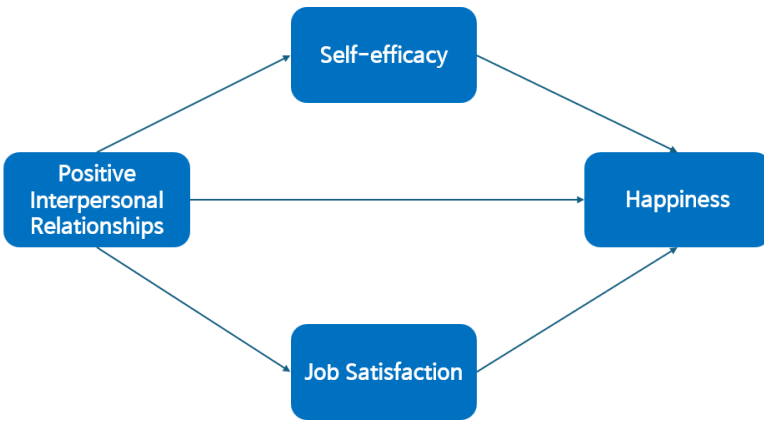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하 고용개발원에서 제공하는 <2022년 장애인고용패널> 2차 웨이브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3a). 장애인고용패널조사는 국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 및 고용상태를 파악하여 장애인 경제활동 상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해 진행된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3b). 본 연구는 2023년 제공된 7차년도 자료로 연구대상자는 장애인고용패널 조사에 응답한 국내 거주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4,577명 중 응답자료 중에서 본 연구에 필요한 문항에 모두 응답한 1,497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연구모형

본 연구는 임금근로 장애인의 긍정적 대인관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기 효능감과 직무만족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병렬다중매개모형을 설정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독립변수인 긍정적 대인관계, 세부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 종속변수인 행복감을 동시에 담은 전체 모형에서 각 경로의 효과를 개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다. 둘째, ERG이론에 따라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 간에는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전제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Figure 1〉 Research Model

3. 측정도구

1) 종속변수 : 행복감

행복감은 〈2022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 7차 자료에서 조사된 문항 중 ‘현재 행복한 정도’에 대해 묻는 단일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범주는 매우 불행(1점)에서 매

우 행복(10점)까지 10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독립변수 : 긍정적 대인관계

긍정적 대인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 7차 자료에서 조사된 문항 중 긍정적 대인관계 문항을 사용하였다. 긍정적 대인관계는 ‘나는 친구를 쉽게 사귀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걸기 전에 먼저 말을 건다’ 등 7문항으로 구성된 대인관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문항에 대한 응답 및 수량화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매개변수

(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2022년 장애인패널조사>(7차)에 포함되어 있는 자기효능감(GSE: The General Self-efficacy Scale)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영민 외(Lee, et al., 1994)에 의해 한국어로 번역된 이후 사용되고 있다. 설문 문항은 ‘어려운 일이라도 열심히 노력한다면 나는 해낼 수 있다’, ‘목표에 집중해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은 나에게 쉬운 일이다’ 등 10문항으로 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및 수량화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2)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브레이필드와 로스(Brayfield & Rothe, 1951)의 직무만족 척도 중 전반적 만족 수준에 대한 5문항으로 측정되었다(오지원·여영훈, 2022). 설문 내용은 직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지속, 보람 등 응답자가 평소 생각하는 직무에 대한 감정으로 이뤄져 있는데 예를 들면 ‘나는 현재 하는 일에 만족하고 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보람을 느끼면서 하고 있다’와 같다(석관호·윤세정, 2021; 최희철·김혜리·김영미, 2021).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및 수량화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다.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임금근로 장애인의 긍정적 대인관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병렬다중매개효과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자료분석은 통계 프로그램 SPSS 18.0과 AMOS 18.0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절차는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변수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더불어 연구대상자 특성별 행복감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 및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셋째,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피어슨(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임금근로 장애인의 긍정적 대인관계와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의 매개효과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산출하였고,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식을 사용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 각각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를 활용하여 부트스트래핑 500회 실시한 병렬다중매개효과 크기를 파악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판단을 위해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rker-Lewis Index) 수치로 검토하였다. 모형적합도 판단 기준은 후와 벤틀러(Hu & Bentler, 1999)의 제안에 따라 RMSEA는 .08 이하, CFI와 TLI는 .90 이상으로 하였다.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는 표준화계수로 살펴보았고, 이상치(경로계수 1 이상) 확인 및 통계학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성은 t 값의 절대값이 1.96 이상(5% 유의수준)일 경우로 보았다(Peek, 2000).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1,119명(74.7%)으로 여성 378(25.3%)보다 많았다. 연령대는 40대~50대가 885명(59.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대~30대가 411명(27.5%), 60대~70대가 201명(13.4%)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46.0세(표준편차 11.378, 범위 21세~70세)였다. 학력은 고졸이 692명(46.2%)으로 가장 많았고, 대졸 이상이 581명(38.8%), 중졸 이하가 224명(15.0%)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장애유형은 신체외부장애가 945명(63.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감각장애 369명(24.6%), 정신적 장애 110명(7.3%), 신체내부장애 73명(4.9%)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정도는 심하지 않은 장애가 1,098명(73.3%)으로 심한 장애(399명, 26.7%)보다 많았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n=1,497)

Variables	Category	n	%
Gender	Male	1,119	74.7
	Female	378	25.3
Age	20s~30s	411	27.5
	40s~50s	885	59.1
	60s~70s	201	13.4
	Mean	46.0±11.378 (range 21~70)	
Grade	Less than middle school graduation	224	15.0
	High school	692	46.2
	College graduate or higher	581	38.8
Type of disability	External disabilities	945	63.1
	Sensory disabilities	369	24.6
	Mental disorders	110	7.3
	Internal physical disability	73	4.9
Degree of disability	Severe disability	399	26.7
	Mild disability	1,098	73.3

2. 연구대상자 특성에 따른 행복감 차이

연구대상자 특성인 성별, 연령대, 학력,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른 행복감 차이를 비교하였다. 먼저, 성별에서는 남성이 6.71점(± 1.190), 여성이 6.75점(± 1.213)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행복감이 0.04점 높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t=0.612, p=.541$). 연령대에서는 20대~30대 6.77점(± 1.315), 40대~50대 6.75점(± 1.105), 60대~70대 6.46점(± 1.292)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더불어 20대~30대 집단과 60대~70대 집단, 40대~50대 집단과 60대~70대 집단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5.879, p<.01$). 학력에서는 중졸 이하 6.52점(± 1.231), 고졸 6.65점(± 1.188), 대졸 이상 6.87점(± 1.175)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중졸 이하 집단과 대졸 이상 집단, 고졸 집단과 대졸 이상 집단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25.376, p<.001$). 장애정도에서는 심하지 않은 장애가 6.74점(± 1.155)으로 심한 장애(6.66점, ± 1.301)보다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학적으로

〈Table 2〉 Differences of Happiness by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y	Happiness			
		M \pm SD	t or F	p	Scheffé
Gender	Male	6.71(± 1.190)	0.612	.541	-
	Female	6.75(± 1.213)			
Age	20s~30s ^a	6.77(± 1.315)	15.879**	<.01	a)c b)c
	40s~50s ^b	6.75(± 1.105)			
	60s~70s ^c	6.46(± 1.292)			
Grade	Less than middle school graduation ^a	6.52(± 1.231)	25.376***	<.001	a)c b)c
	High school ^b	6.65(± 1.188)			
	College graduate or higher ^c	6.87(± 1.175)			
Degree of disability	Severe disability	6.66(± 1.301)	1.054	.292	-
	Mild disability	6.74(± 1.155)			
Type of disability	External disabilities ^a	6.67(± 1.225)	11.743*	<.05	-
	Sensory disabilities ^b	6.60(± 1.260)			
	Mental disorders ^c	6.57(± 1.223)			
	Internal physical disability ^d	6.79(± 1.161)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t=1.054, p=.292$). 장애유형에서는 신체외부장애(6.79점±1.161), 신체내부장애(6.67점±1.225), 감각장애(6.60점±1.260), 정신적장애(6.57점±1.223) 순으로, 집단 간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F=11.743, p<.05$) 다중비교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3.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및 기술통계치 확인

주요 변수 중 긍정적 대인관계,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측정도구에 대한 구성개념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긍정적 대인관계와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각각 1차 요인구조모형으로 설정하여 데이터에 대한 모형 적합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긍정적 대인관계는 $\chi^2=373.173, df=14, CFI=.901, TLI=.852, RMSEA=.131$ 로 CFI값은 양호하나 TLI와 RMSEA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모형수정지수를 참고로 모형을 재수정한 후 수정모형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chi^2=115.753, df=12, CFI=.972, TLI=.950, RMSEA=.076$ 으로 TLI와 RMSEA가 기준치를 충족하였다. 자기효능감은 $\chi^2=212.860, df=35, CFI=.973, TLI=.965, RMSEA=.058$ 로 데이터에 대한 모형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은 $\chi^2=51.458, df=5, CFI=.985, TLI=.970, RMSEA=.079$ 로 데이터에 대한 모형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각각 1차 요인구조모형으로 이루어진 긍정적 대인관계, 자기효능감, 직무만족의 구성개념타당성이 확인되었다.

측정도구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를 산출한 결과, 긍정적 대인

〈Table 3〉 Measurement Tool's Validity and Reliability

		Validity				Reliability
		χ^2 (df)	CFI	TLI	RMSEA	Cronbach's α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Before modification	373.173 (14)	.901	.852	.131	.841
	Modified model	115.753 (12)	.972	.950	.076	
Self-efficacy		212.860 (35)	.973	.965	.058	.898
Job satisfaction		51.458 (5)	.985	.970	.079	.856

관계는 .841, 자기효능감은 .898, 직무만족은 .856으로 양호한 값을 보였다.

다음으로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긍정적 대인관계는 평균 20.61점(표준편차 3.521, 범위 7~28점), 왜도 -.616, 첨도 1.324, 자기효능감은 평균 29.64점(표준편차 4.783, 범위 10~40점), 왜도 -1.036, 첨도 2.358, 직무만족은 평균 18.46점(표준편차 2.817, 범위 5~25점), 왜도 -.400, 첨도 .744, 행복감은 평균 6.72점(표준편차 1.196, 범위 1~10점), 왜도 -.599, 첨도 1.259로 나타났다. 주요변수의 측정 점수들의 첨도와 왜도가 정규분포의 일반적인 기준치(왜도의 절대값 3과 첨도의 8 또는 10)를 넘지 않고 있어서 구조방정식의 최대우도추정방법 조건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모수치를 추정하는 데 문제가 없음이 입증되었다(Kline, 2005).

〈Table 4〉 Measurement Tool's Validity and Reliability

	Mean	SD	Skewness	Kurtosis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20.61	3.521	-.400	.744
Self-efficacy	29.64	4.783	-.616	1.324
Job satisfaction	18.46	2.817	-1.036	2.358
Happiness	6.72	1.196	-.599	1.259

4. 연구모형 검증결과

1)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등 검증에 앞서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피어슨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변수가 $p < .00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각 변수 간 상관계수 절대값이 .8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5〉 The Correlations among Main Variab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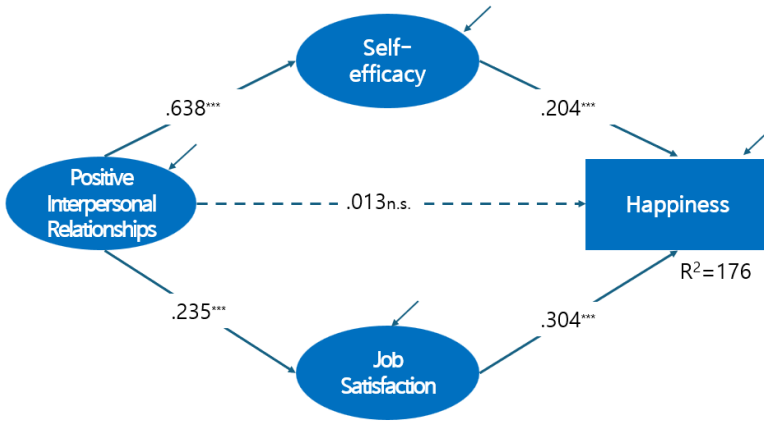
	1	2	3	4
1. PIR*	1			
2. Self-efficacy	.558***	1		
3. Job Satisfaction	.205***	.265***	1	
4. Happiness	.206***	.296***	.338***	1

*** $p < .001$ *PIR=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2) 연구모형 적합도 및 변수 간 관련성

다음으로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모형적합도 지수는 $\chi^2(df)=1040.198(223)$, CFI=.944, TLI=.937, RMSEA=.049로 통계학적인 허용기준을 충족하였다.

변수 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모형의 모수추정치 확인 및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먼저, 긍정적 대인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을 거쳐 행복감으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각각 .638과 .204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긍정적 대인관계에서 직무만족을 거쳐 행복감으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각각 .235와 .304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한편 긍정적 대인관계에서 행복으로 직접적으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013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종속변수인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의 설명력은 17.6%로 나타났다.



n=1,497 $\chi^2=1040.198$ df=223 CFI=.944 TLI=.937 RMSEA=.049

〈Figure 2〉 Research Model Verification Results (Standardized Coefficient)

3) 병렬다중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병렬다중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를 활용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검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추정치 표준오차(standard

error of estimate), 부트스트랩 95% 신뢰구간값을 분석하였다. 긍정적 대인관계와 행복감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215~.488로 0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p < .05$ 수준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긍정적 대인관계와 행복감의 관계에 있어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122~.258로 0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p < .05$ 수준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에 긍정적 대인관계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은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되었다.

(Table 6) Results of Multi-mediated Effect Verification

Path	Estimate	S.E.	95% confidence interval
PIR → Self-efficacy → Happiness	.337	.066	.215~.488
PIR → Job satisfaction → Happiness	.184	.035	.122~.258

* PIR=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조사 7차 자료를 활용하여 임금 근로 장애인의 긍정적 대인관계와 행복 사이의 관계가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행복결정요인을 설명하는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 등 선행연구를 참고로 연구모형을 구축하여 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토와 변수 간 관련성 및 병렬다중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살펴보았다.

이번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근로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행복감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행복감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행복도가 낮아진다는 연구결과(이달엽, 2014; 강동우 외, 2020), 학력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행복도가 낮다는 연구결과(강동우 외, 2020; 국회미래연구원, 2022), 그리고 행복의 연령효과에 따른 중년연구에서 행복곡선이 역U자형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김혜

연, 2020)와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종단연구 초기치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행복수준이 높았다는 연구결과(박종은, 2022)도 있어 계속해서 추적검증이 필요하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신체외부장애 집단이 다른 장애를 가진 집단보다 행복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신체외부장애가 신체내부장애보다 심리적 만족감이 높고(원일 외, 2019), 정신장애가 다른 장애보다 일상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윤희정·신자은, 2015)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보인다. 장애유형에 따른 행복감 차이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다만, 학벌사회, 연령차별사회, 혐오사회로 불리는 한국사회 현실을 고려할 때 장애인 학력고연령은 한국 사회에 속한 개인의 행복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유엔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머무른 한국에 법률 재검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CCPR, 2023.11.24). 차별을 넘어 혐오가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한국 사회가 더 피폐해지지 않도록, 사회구성원의 다양성 인정과 행복권 보장 측면에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모형 검증 결과, 임금근로 장애인의 긍정적 대인관계는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을 거쳐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긍정적 대인관계는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대인관계가 주관적 행복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박병선·배성우, 2012), 대인관계가 양호할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유항금, 2020), 인간관계로 형성되는 사회자본과 삶의 질 간에 유의미한 관계를 검증한 연구결과(이미라, 2011) 등과 비교하면 이번 연구에서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매개변수와의 관계 측면에서 보면, 다수의 연구결과에서 장애인의 대인관계가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삶의 만족을 높인다고 보고(권오형·문재우, 2018; 이진향, 2021; 김유진, 2021; 김은영·이미애, 2022)하여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직무만족 측면에서 보면, 사회자본의 양과 질이 부족하거나 제한된 네트워크는 직무만족을 낮추어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선행연구 결과(이미라, 2011), 감성형 공감모듈을 사용할수록 직무만족과 행복감이 높다는 연구결과(김현희 외, 2017)와 같은 맥락이다.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행복감은 높은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을 통해 증진되고, 기저에는 개인의 긍정적 대인관계 능력이 작용한다. 긍정적 대인관계는 타인과 관계

맺기에 있어 얼마나 유연한지, 즉 타인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타인에 대한 자신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태도는 공감과 소통능력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다.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의사표현과 행동은 타인에 대한 공감 신호이자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표시이기도 하다. 인간관계는 상호성으로 작동되지만 상대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한 자신으로부터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노력이 줄면 관계도 소원해진다. 이러한 관계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직무환경에서도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소통은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하여 직무만족을 높이고, 개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기반이 된다(김현희 외, 2017).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장애특성(예컨대 청각장애, 발달장애)으로 인해 대인관계 시 적절한 소통 기술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고용하는 기업에서는 장애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장애특성을 고려한 소통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타인과 관계 맺기 연습을 할 수 있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장애 당사자의 자신감을 높이고, 직무환경에 대한 적응과 만족감을 높임으로써 개인의 행복감 증진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서 제공하는 변수들만을 사용하여 행복감에 대한 결정요인을 다양하게 검증하지는 못했다. 또한 횡단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임금근로 장애인의 다양한 환경요인에 따른 행복도 변화를 입체감 있게 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계속해서 임금근로 장애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요인 간 인과성을 살펴보는 다양한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논문 및 단행본

- 강동우·안주엽·남수연(2020). 지역 특성이 주민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의 탐색. **국토연구**, 104, 3-21. [Kang, Dongwoo, et al. (2020). Searching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affecting residents' happiness.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104, 3-21.]
- 고현록·김정희(2014). 임상간호사의 감성지능과 대인관계능력, 직무만족도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3), 413-423. [Ko, Hyun-rok, & Kim, Jeong-hee (2014). The relationships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job satisfaction of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3), 413-423.]
- 국회미래연구원(2019). **한국인의 행복 측정 기반 연구**.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2019). *Research based on measurement of Koreans' happiness level*.]
- 권오형·문재우(2018). 장애인의 대인관계가 일상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융합정보논문지**, 8(6), 327-333. [Kweon, Oh-hyung, & Moon, Jae-woo (2018). The influence of interpersonal rel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y on daily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6), 327-333.]
- 김근홍·이송희(2023). 저소득층 독거노인의 건강상태와 주거상태가 우울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융합인문학**, 11(3), 81-103. [Kim, Keun-hong, & Lee, Song-hee (2023). The effects of health and housing conditions on depression and happiness of low-income elderly living alone. *Korean Journal of Converging Humanities*, 11(3), 81-103.]
- 김민경(2012). 남녀대학생의 강점, 가족건강성과 행복과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4), 47-68. [Kim, Min-kyung (2012). Relationship on university students' strengths, family strengths, and happines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6(4), 47-68.]
- 김유진(2021). 발달장애성인의 대인관계가 긍정적 자아개념을 매개로 일상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12(5), 1093-1108. [Kim, Yoo-jin (2021). The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the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n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Humanities & Social Science*, 12(5), 1093-1108.]
- 김은영·이미애(2022). 장애인의 대인관계가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중심. **산업융합연구**, 20(8), 145-154. [Kim, Eun-yeong, & Lee, Mee-ae (2022). The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f the disabled on daily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20(8), 145-154.]
- 김차영·이인영(2024). 일상재구성법을 통해 살펴본 한국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행복. **장애와 고용**, 34(1), 25-46. [Kim, Cha-young, & Lee, In-yeong (2024). Happiness among the disabled and the non-disabled in Korea as measured by the day reconstruction method. *Disability & Employment*, 34(1), 25-46.]
- 김청송(2018).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행복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5(4), 177-197. [Kim, Chung-song (2018). A study on the mediation effects of social suppor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of adolescent and happines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5(4), 177-197.]
- 김현희 외(2017). 공감모듈과 긍정심리자본이 직무만족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30(2), 247-273. [Kim, Hyun-hee et al. (2017). The effects of sympathy module and psychological

- capital on job satisfaction and happiness.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30(2), 247-273.]
- 김혜연(2020). 성별 및 연령 집단별 주관적 삶의 질(subjective well-being)의 원인에 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 학회보**, 24(2), 47-72. [Kim, Hye-young (2020). Trends and causes of subjective well-being in Korea. *Korean Policy Sciences Review*, 24(2), 47-72.]
- 류시영·강병훈(2012). 청소년의 체험활동 만족과 자아존중감, 행복감 간의 관계: 아시아태평양잼버리 참가자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3(4), 27-50. [Ryu, Si-young, & Kang, Bang-hun (2012). The effects of adolescents' leisure experiences on self-esteem and happiness. *Studies on Korean Youth*, 23(4), 27-50.]
- 박병선·배성우(2012). 대인관계와 학교성적이 학교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성별 및 학교급별 비교. **청소년복지연구**, 14(3), 215-238. [Park, Byung-sun, & Bae, Sung-woo (2012). The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academic achievement on the subjective well-being among school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Welfare*, 14(3), 215-238.]
- 박영신·김의철(2004). **한국의 청소년 문화와 부모자녀관계: 토착심리탐구**. 교육과학사. [Pak, Young-shin, & Kim, Ui-cheol (2004). *Korean youth culture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Exploring indigenous psychology*. Kyoyuk-kwahaksa.]
- 박영화·고재홍(2005).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71-100. [Park, Young-hwa, & Ko, Jae-hong (2005). The effects of self and spouse's self-esteem, communication pattern, and conflict coping behaviors on marital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9(1), 71-100.]
- 박종은(2022). 행복궤적과 관련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Veenhoven의 논의와 장에 유무에 따른 탐색. **보건사회연구**, 42(2), 122-140. [Park, Jong-eun (2022). Exploratory research on happiness trajectory and related factor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42(2), 122-140.]
- 박희수·문승연(2014).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 **한국자치행정학보**, 28(3), 197-219. [Park, Hee-su, & Mun, Seung-yeon (2014). Mediator effect of school life adaptation affecting ten between university students' happiness, self-respect and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28(3), 197-219.]
- 서하진·김정옥(2009).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자아존중감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3), 141-178. [Seo, Ha-jin, & Kim, Jung-ok (2009). Self-esteem and happiness caused by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of family strength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4(3), 141-178.]
- 석관호·윤세정(2021). 장애인 근로자와 비장애인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만족 수준의 차이와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34(3), 425-450. [Suk, Kwan-ho, & Yun, Se-jeong (2021). Job satisfaction of disabled and non-disabled employees.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34(3), 425-450.]
- 손지현(2013). 연극 종사자의 행복 수준과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문화경제연구**, 16(2), 3-24. [Shon, Ji-hyun (2013). A study on happiness of theatre production crews. *Review of Cultural Economics*, 16(2), 3-24.]
- 송진영(2024). 임금근로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장애와 고용**, 34(1), 5-23. [Song, Jin-yeong (2024). The effect of wage workers with disabilities'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on happiness. *Disability & Employment*, 34(1), 8-23.]
- 송혜란 정은희(2023). 시기능 저하 인식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경·중증 시각장애인 집단 간 차이를 중심으로. **시각장애연구**, 39(1), 33-61. [Song, Hae-ran, & Jung, Eun-hee (2023). The effects of perception of vision loss progression on the level of daily happiness mediated by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39(1), 33-61.]
- 안상현(2013).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참여노인의 사회지원과 지각된 건강상태, 행복 및 우울 인과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2(1), 541-550. [An, Sang-hyun (2013). Relationship among social support, perceived health status, happiness and depression of elderly participant in recreation program.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52(1), 541-550.]
- 오민자·이수영(2017). 행복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Alderfer의 E,R,G.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9(3), 489-508. [Oh, Min-ji, & Lee, Soo-young (2017). A study on the determinants affecting happiness.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29(3), 489-508.]
- 오지원·여영훈. (2022). 근로 장애인의 직무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가족취업지지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32(2), 269-295. [Oh, Ji-won & Yeo, Yeong-hun (2022). The effect of the working disabled's job characteristics on job satisfaction. *Disability & Employment*, 32(2), 269-295.]
- 외교부(2021.07.04). **대한민국,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선진국 그룹 진출**. 외교부 보도참고자료. [Ministry of Foreign Affairs (July 4, 2021). *Korea enters the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developed country group*.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ress release.]
- 원일 외(2019). **세종시 장애인 평생교육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세종특별자치시 연구보고서. [Won, Il, et al. (2019). *Research on program development for efficient operation of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in Sejong City*. Sejong City.]
- 유수형·조상미(2021). 직무만족은 임금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31(4), 23-51. [Yoo, Su-hyeong, & Cho, Sang-mi (2021). Does job satisfaction affect the daily life satisfaction of wage workers with disabilities?. *Disability & Employment*, 31(4), 23-51.]
- 유향금(2020). 중고령 장애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웰니스학회지**, 15(4), 621-632. [Ryu, Hyang-geum (2020). The factors that affect the subjective happiness of the middle and old age of disabled peopl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15(4), 621-632.]
- 윤갑정(2012). 예비보육교사의 목표, 만족도, 자기효능감 및 우울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 2012년 학술대회자료집**. [Yoon, Gap-jeong (2012). The effects of prospective childcare teachers' goals, satisfaction, self-efficacy, and depression on happiness. *2012 Conference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care*.]
- 윤희정·신자은(2015).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공적·전소득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5(4), 432-461. [Yun, Hee-jung, & Shin, Ja-eun (2015).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5(4), 432-461.]
- 이경민·최윤정(2009). 유아교사의 행복, 강점, 직무만족의 관련성 탐색 연구. **유아교육연구**, 29(3), 215-235. [Lee, Kyong-min, & Choi, Yun-jeong (2009).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among happiness index,

- character strengths, and job satisfaction of preschool educator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9(3), 215-235.]
- 이달엽(2014). 장애인 삶의 질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장애인고용패널 중심의 세 집단 비교. **장애와 고용**, 24(3), 99-122. [Lee, Dal-yob (2014). A study on the quality of life and happiness index of the 5th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Disability & Employment*, 24(3), 99-122.]
- 이명우·홍윤미·윤기웅(2016). 여가 활동이 국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 **문화정책논총**, 30(2), 264-287. [Lee, Myong-woo, et al. (2016). Impacts of leisure activities on individual happiness. *Journal of Cultural Policy*, 30(2), 264-287.]
- 이미라(2011).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회적 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4), 413-443. [Lee, Mi-ra (2011). A study on the effects of self-support program participants' social capital on their quality of lif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2(4), 413-443.]
- 이미영 외(2019). 임금노동자의 일과 여가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노동정책연구**, 19(4), 63-96. [Lee, Mi-young, et al. (2019). The effects of wage workers' work and leisure on happiness. *Quarterly Journal of Labor Policy*, 19(4), 63-96.]
- 이영숙·김정옥(200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2), 133-159. [Lee, Young-suk, & Kim, Jung-ok (2002). The effect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types on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Family Relations*, 7(2), 133-159.]
- 이진숙·김은주(2013). 아동의 기질, 부모자녀 의사소통, 또래관계가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2(5), 433-445. [Lee, Jin-suk, & Kim, Eun-ju (2013). The effects of children's temperament, parent-child communication styles, and peer relationships on children's happines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2(5), 433-445.]
- 이진우·정명희(2023). 한국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대인관계능력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별과 근무기간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연구**, 23(1), 111-120. [Lee, Jin-woo, & Jung, Myung-hee (2023). The effect of foreign workers interpersonal competence in the Korea industry on job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 Culture Industry*, 23(1), 111-120.]
- 이진향(2021). 정신장애인의 삶의 만족에 대한 대인관계의 영향 및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공공사회연구**, 11(1), 62-84. [Lee, Jin-hyang (2021). The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n life satisfaction of the mentally disabled and moder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Journal of Public Society*, 11(1), 62-84.]
- 이태진 외(2021).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Lee, Tae-jin, et al. (2021). *A comprehensive study of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in Korea*. Korea Institute for Health & Social Affairs.]
- 전근성(2022). 빈곤 노인의 종단적 우울 변화 유형화 및 영향요인 검증. **인문사회** 21, 13(5), 417-432. [Jeon, Geun-seong (2022). Typifying longitudinal depression changes and verifying influencing factors in the elderly in poverty. *Journal of Humanities & Social Science*, 13(5), 417-432.]
- 정은의·노안영(2007). 사회경제적 요인과 기혼여성 행복감 관계: 개별성-관계성의 조절효과 및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1), 59-82. [Chung, Eun-eui, & Noh, Ann-young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factors and married women's happiness. *Korean Journal*

- of Psychology*, 26(1), 59-82.]
- 최영출·이지혜(2013). 지역 주민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7(2), 21-38. [Choi, Young-chool, & Lee, Ji-hae (2013). A study of the economic factors affecting happiness of local residents.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27(2), 21-38.]
- 최희철·김혜라·김영미(2021). 임금근로 지체장애인의 자존감 발달궤적과 직무만족 간의 종단적 관계. **장애와 고용**, 31(2), 47-68. [Choi, Hee-cheol, et al. (2021). Longitudinal relationships between trajectories of self-esteem and job satisfaction of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Disability & Employment*, 31(2), 47-68.]
-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3a). **2022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웨이브 7차조사) 데이터**. [Korea Employment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2023a). *2022 disabled employment panel survey data (2nd wave 7th survey)*.]
- _____ (2023b).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웨이브 1~7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Korea Employment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2023b). *Disabled employment panel 2nd wave 1st~7th survey: User's guide*.]
- 한준 외(2022). **2022 인권의식실태조사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Han, Jun, et al. (2022). *2022 Human Rights Awareness Survey Report*.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 허중호(2023). **세계행복보고서 10년의 결과: 친사회적 사회가 행복한 국민을 만든다**. 국회미래연구원. [Heo, Jong-ho (2023). *Results of the 10th year of the World Happiness Report: A pro-social society creates happy people*. National Assembly Future Institute.]
- 황인호·장성화(2012). 교사의 심리적 안녕감, 공감능력, 직무효율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2), 232-242. [Hwang, In-ho, & Jang, Sung-hwa (2012). The effect of psychological well-being, empathy ability scale and job efficiency on teacher's job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2(2), 232-242.]
- 황정우·유수현(2013). 정신장애인의 행복감 영향요인 연구. **재활심리연구**, 20(2), 191-222. [Hwang, Jung-woo, & Yoo, Soo-hyun (2013).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happiness of persons with mental disorders.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20(2), 191-222.]
- Alderfer, C. P. (1972). *Existence, relatedness, and growth: Human needs in organizational settings*. New York: Free Press.
- CCPR (2023).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if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UN Human Rights Committee.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Emerson, E., et al. (2020). The wellbeing of working-age adults with and without disability in the UK: Associations with age, gender, ethnicity, partnership status, educational attainment and employment status. *Disability & Health Journal*, 13(3), 100889.
- Hsieh, N., & Waite, L. (2019). Disability,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ocial interaction in later life

- in china. *Research on Aging*, 41(4), 362-389.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Lucas, R. E., & Diener, E. (2009). Person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In E. Diener (Ed.), *The science of well-being* (pp. 75-102). Springer Science+Business Media.
- Maslow, A. H. (1954).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s.
- Moller, D. (2011). Wealth, disability, and happiness. *Philosophy Public Affairs*, 39(2), 177-206.
- Oswald, A. J., & Powdthavee, N. (2008). Does happiness adapt? A longitudinal study of disability with implications for economists and judg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2(5-6), 1061-1077.
- Peek, M. K. (2000).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rehabilitation research. *American Journal of Physical Medicine & Rehabilitation*, 79(3), 301-309.

2. 보도자료

- 뉴스핌(2023.12.05). **이화여대, 빅데이터로 본 노키즈존·차별혐오 관련성 높아**. [Newspim (December 5, 2023). *Ewha Womans University, No-Kicks Zone seen through big data... Highly related to discrimination and hatred*.]
<http://www.newspim.com/news/view/20231205000554> (검색일: 2024.02.10. 11:30)
- 서울경제(2023.07.21). **나이 구분 없는 연령통합사회 만들어야 노인 혐오 사라져**. [Seoul Economics (July 21, 2023). *Let's create an age-integrated society without age distinctions to eliminate hatred of the elderly*.]
<http://www.sedaily.com/NewsView/29S7U3GWAV> (검색일: 2024.02.10. 11:31)
- 에이블뉴스(2023.08.07). **장애학생 혐오 뒤 숨은 교육부 “교육시스템 개선하라”**. [Able news (April 7, 2023). *Ministry of Education, hidden behind hatred of disabled students, “Improve the education system”*.]
<http://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197> (검색일: 2024.2.10. 11:31)
- 연합뉴스(2024.01.07). **언론 보도가 죽은 사람 살릴 수도... '자살공화국'오명 벗어야**. [Yonhap News (January 7, 2024). *Media coverage can save a dead person... We need to get rid of the stigma of 'suicide republic'*.]
<http://www.yna.co.kr/view/AKR20240105117600004> (검색일: 2024.2.10. 10:10)
- 이투데이(2024.01.08). **[정책에세이] 애도 낳지 마? ... 가난이 '혐오 대상'이 된 사회**. [E-today (January 1, 2024). *Policy Essay: Don't have children? ... A society where poverty has become an 'object of hate'*.]
<http://www.etoday.co.kr/news/View/2318722> (검색일: 2024.02.10. 11:32)
- 한겨레(2023.04.10). **한국 소득 불평등, OECD 2번째로 빠르다**. [Hankyoreh (April 10, 2023). *Korea's income inequality is 2nd fastest in OECD countries*.]
https://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1087168.html (검색일: 2024.02.10. 10:15)

3. 웹자료

Ipsos 홈페이지. [Global Happiness 2023. Ipsos.]

<https://www.ipsos.com/sites/default/files/ct/publication/documents/2023-07/Ipsos%20Global%20Happiness%202023%20Report.pdf> (검색일: 2024.02.10, 11:00)

박자선

일본 오카야마현립대에서 보건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우송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극동대학교에 강사로 출강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돌봄, 관계, 노인복지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일상생활 및 가정경제 변화가 범불안장애에 미치는 영향”, “팬데믹 시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연구: 장기요양 돌봄노동자를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역할스트레스, 정서적 소진, 정신건강 간의 관련성: 대전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를 중심으로” 등이 있다.

E-mail: lundy@daum.net

국문초록

임금근로 장애인의 긍정적 대인관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의 병렬다중매개효과 분석

박지선

우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본 연구는 장애인의 행복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실천방안 마련에 필요한 시사점을 찾고자 임금근로 장애인의 긍정적 대인관계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 및 행복연구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변수 간 관련성을 연구모형으로 구축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하 장애인고용개발원의 <2022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조사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임금근로장애인의 고연령, 저학력, 신체외부장애 집단에서 행복감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긍정적 대인관계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은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과 장애인의 긍정적 대인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실천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제어: 임금근로 장애인, 행복, 긍정적 대인관계,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투고일: 2024.02.11. / 심사완료일: 2024.02.26. / 게재확정일: 2024.03.02.